문화부시장제·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조례 후보마다 제각각

광주시장 후보, 시민단체 공약 얼마나 받아 들이나

6·13 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서 광주지역 문화·복지·사회 단체들의 후보 공약·정책 검증과 평가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 단체의 공약 검증과 평가는 정당과 학연·지연으로 후보를 선택했던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공약·정책 선거'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후보들의 공약·정책 개발 과정에 각 분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실현 가능한 공약을 발굴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좋은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화연대 제안 10대 정책

양향자 후보 9개 정책 유보
예술인 일자리, 모두 동의
나경채·윤민호 "전부 수용"

광주 시민문화예술단체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6·13지방선거 문화정책연대(이하 문화연대)는 17일 '문화부시장 도입' 등 자신들이 발굴한 '10대 핵심 문화정책'을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이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또 각 후보에게 '10대 핵심 문화정책'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 이날 함께 공개했다. 〈표 참고〉

문화연대의 10대 핵심 정책은 ▲문화부시장제 도입 ▲문화 협치 조례 제정 ▲문화 개방형 공직자 확대 및 문화기관 이사회 구성 개선 ▲문화예술인 사회혁신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인 기본 소득 보장 조례 제정 ▲문화예술 보조금 사업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광주예술가의 집 건립 ▲광주 문화행사 홍보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각 구별 청년문화의 집 건립 ▲ 광주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 등이다.

문화연대는 "보수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지역의 문화생태계는 회복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미래가 불투명하다"면서 "지역 문화계의 척박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민선 7기를 이끌어갈 광주시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에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연대가 발표한 각 후보들의 답변서에 따르면 양향자 예비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후보자들이 문화연대가 제안한 민선 7기 문화정책 방향과 10대 핵심 정책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후보는 문화부시장제 도입,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조례 제정에 유보 입장을 보였고, 이용섭 후보는 문화개방형 공직자 확대 및 문화기관 이사회 구성 개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조례 제정 등에 유보의 뜻을 보냈다. 양향자 후보는 문화부시장제 도입을 유보했고,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윤민호 후보는 10대 핵심 정책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정책연대는 "강기정, 이용섭 후보가 유보 입장을 밝힌 정책도 제안 취지는 동의하고 있는 만큼 후보로 확정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연대는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면 각 정당의 광주시장 후보자의 문화정책과 공약을 분석해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정선거지원단 '자유·공정 가치 실현 퍼포먼스' 17일 염주체육관 광장에서 열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자유·공정·화합 가치 실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분야 주요정책 후보 답변서

정책 \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강기정	양향자	이용섭	나경채	윤민호
문화부시장제 도입	유보	유보	동의	동의	동의
문화 개방형 공직자 확대 및 문화기관 이사회 구성 개선	동의	유보	유보	동의	동의
문화예술인 사회혁신 일자리 창출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보장 조례 제정	유보	유보	유보	동의	동의

강기정·나경채·이용섭 등 27명 복지연대 '좋은 복지 후보' 선정

복지철학·정책공약 등 평가

광주지역 복지 연합체인 광주복지연대는 복지 관련 좋은 공약을 찾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좋은 복지 후보'를 선정했다.

복지연대는 17일 "정책공약추진단 교수들과 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좋은 복지 후보' 평가를 진행해 27명의 예비후보를 선정했다"면서 "심사 과정에 후보자의 이름을 지운 상태인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광주시장 예비후보로는 강기정, 나경채, 이용섭 후보가 '좋은 복지 후보'로 선정됐다.

또 광주시의원 출마후보 중 ▲박대현(동구 제2선거구) ▲이은주(서구 제2선거구) ▲김용집(남구 제1선거구) ▲배진하(남구 제3선거구) ▲이경호(북구 제2선거구) ▲신수정(북구 제3선거구) ▲하정호(광산구 제5선거구) 후보가 뽑혔다.

구청장 예비후보 중에서는 ▲동구 강신기 ▲서구 김보현, 김영남 ▲남구 김병내 ▲북구 문상필, 조오섭 ▲광산구 윤난실 후보가 선정됐다.

또 구의원 예비후보로는 전영원, 박미정, 김태진, 유종천, 최기영, 고영봉, 최연용, 조영님 후보가 선정됐고 교육감 예비후보로는 정희곤, 이정선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복지연대는 지난 3월 3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좋은 복지 후보'를 공모해 6·13 지방선거 출마자의 복지철학과 마인드, 정책공약 등을 평가했다. 평가는 일반사항(10점), 복지철학(20점), 복지활동(20점), 복지공약(30점), 소통협치(20점) 등 총 100점으로 선정기준을 정했다.

'좋은 복지 후보' 공모를 추진한 전성남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도시 광주를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며 "'좋은 복지 후보'로 선정된 후보자들이 당선된 이후에도 심사 과정에 제출한 복지공약들을 반드시 실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양향자·나경채·윤민호 "새마을장학금 폐지"…강기정·이용섭은 답변 거부

특혜폐지 시민회의 공개질의
2만 회원 표심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 강기정·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새마을장학금 존폐' 여부를 묻는 시민단체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강·이 후보를 제외한 민주당 양향자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윤민호 후보는 "새마을장학금 지급관행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17일 새마을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에 따르면 시민회의는 지난 6일 각 정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새마을장학금 존폐 문제에 관한 정책질의서를 보내 후보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새마을회 회원 자녀들에게 광주시와 5개자치구가 매년 2억원 규모의 혈세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고 공개질의한 것이다.

1차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입장을 전달해온 이는 총 5명의 후보자 가운데 민주당 양향자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윤민호 예비후보에 그쳤다.

강·이 후보는 시민회의 측이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운동이므로 16일까지는 2차 답변기회를 드린다'고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양향자·나경채·윤민호 후보 측은 '새마을장학금 존폐'를 묻는 객관식 질의에 '즉각 폐기'를 선택했다.

세 후보자는 '시장에 당선되면 집행부 발의로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기안 발의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객관식 잘문에 모두 '있다'는 답을 택했다. 양향자·나경채 후보는 새마을장학금 지급관행에 대해 "150만 광주시민에게 공평하게 지급되지 않은 점만 보더라도 적폐성격이 강하다"는 입장도 답변서에 덧붙였다.

시민회의는 이날 이같은 답변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2차례 기회를 주었으나 소위 유력 후보로 꼽히는 강기정·이용섭 후보는 끝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촛불시민 정신을 받들겠다면서 박정희 유산인 새마을장학금에는 왜 침묵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정·이용섭 후보가 지역 시민단체의 정책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강·이 후보간 박빙 양상인데다 ▲새마을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입장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박빙 구도에서 '회원수가 2만명에 달하는 광주시 새마을회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강·이 후보 모두 방침을 정한 것이라는 얘기다.

시민회의는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민변), 참여자치21, 광주여성센터 등 지역 15개 시민단체·기관으로 꾸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무안공항 출발
일본 기타큐슈, 마츠모토(나가노) 직항 전세기
2018년 봄의 시작을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쭈우욱~~~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 A 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무안 ↔ 일본 기타큐슈 직항 전세기
5월 가정의 달 고객 감사 세일
소중한 사람들과 떠나는 가까운 일본 여행
2018년 5월 13일(일)부터 정기편 운항
화요일(3박4일) / 금, 일요일(2박3일)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큐슈 품격 특가 3박4일
단, 3회[5/1(화), 5/8(화), 5/15(화)]
한정 특가 599,000원~
(기타큐슈 특급 2박, 고급 온천료칸 1박)
한정 특가 499,000원~
(기타큐슈 1급 1박, 펜션 2박)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마츠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츠모토 관광]
2018년 5월 18일(금)부터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1:00) → 마츠모토(13:10) / 마츠모토(13:30) → 무안(16:20)
[품격] 나가노,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3일(고급료칸 숙박)
일요일 출발 938,000원 / 금요일 출발 998,000원
[품격] 나가노, 나고야,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4일(고급료칸 숙박)
화요일 출발 1,198,000원
★ 알펜루트 전코스 관광(설벽 기간 : 4/15~6/22)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전 코스관광)
★★★ 일본 최고의 절경 북 알프스 관광 ★★★
★ 나가노현의 오오기사와역에서 다테야마 연봉 무로토까지의 대자연을 케이블카, 고원버스, 로프웨이 등으로 이동하는 왕복 산악 루트를 탈것으로 이동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만끽하며 5시간 산책 하는 코스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동조건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